

슬픔

슬픔이 소중함을 알아 슬픔을 슬쩍지 말자.
슬픔을 지니고 돌보아 주며 슬픔이 더없이 귀중한
것임을 보물이 된다. 슬픔이 슬픔의 채로 놓아 두면
참 삶의 힘이 된다.

(헨리 데이빗 소로우)

近死之心 莫使復陽也 (莊子)

죽음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다시 거짚을 않는다.

죽은 사람

우리의 생각은 돌아간 이들과 늘 함께 한다. 죽어도 잊혀지지
않는 2인 사람이 있다. 우리는 2이들이 천명나라로 올라갔다고 생각한
다. 어떤 이는 죽고 나면 영영 잊혀진다. 2인테 어떤 이는 죽어서 더 가까
워진다. 죽은 뒤에 비로소 생존자 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. 세상
에는 죽음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이들도
적지 않다. (헨리 데이빗 소로우)